

합격기
[제55회 행시 일반행정직]

‘천천히 가더라도 뒤로 가지만 않는다면..’



김 동 혁

- 대구 영진고등학교 졸업
-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제55회 행시 일반행정(대구)직렬합격

I. 들어가며

교육원 입소를 30여일 앞 둔 상태에서 합격수기를 의뢰하는 전화를 받았습니 다. 합격발표이후의 꿈같은 생활을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수기의뢰는 순간의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과연 내가 합격수기를 써도 되는지 의 고민도 주었습니다(원래 합격자 수기는 수석이나 최연소 등이 쓰는데 그냥(?)합격인 내가 써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가 개인적으로는 수험 생활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제 수기로 인하여 수험생 분들이 작은 팀이라도 얻어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부족한 실력과 문장력이지만 수기를 쓰고자 합니다. 모든 합격자들의 수기가 그렇듯 아래의 내용은 저의 주관이 담겨있으므로 읽어보시고 필요한 것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I. 수험생활

1. 고시의 무서움을 몰랐던 시절 (2008년 초 ~ 2010년 초)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2008년 1차라도 쳐볼 생각으로 학교고시원에서 1차 준비를 하였고 정말 운이 좋게 합격을 하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합격이라 저 자신도 놀랐고 주위사람들도 조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주위에 선배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면서 이번시험은 일단 도전에 의의를 두라고 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기적(?)을 보여주고야 말겠다고 생각하면서 휴학을 결정하고 2차 준비를 하였습니다. 물론 결과는 낙방이었습니

다. 그래도 주관적인 생각으로 초시치고는 괜찮게 보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계속휴학을 하며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2009년 2번째 1차 시험이 다가왔고 또 운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했기에 2009년에는 2차 시험 준비를 처음 신림동에서 하게 되었고 성균관대에서 2차를 응시했습니다. 결과는 평균 1.1점차 낙방... 비록 낙방하였지만 이대로만 가면 합격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기쁘게 공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 2차 시험에 집중하고 1차 시험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소홀히 준비한 결과가 바로 그 다음해 시험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 고시의 무서움을 느꼈던 시절 (2010년 초 ~ 2011년 말)

1차 시험이 90분으로 변경되고 시행되던 2010년 처음으로 1차 시험에 낙방하였습니다. 시험제도의 변경의 영향도 고려하지 않고, '설마~ 되겠지' 하는 생각에 휴학을 하고 신림동에서 공부하던 중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서야 저를 둘러싼 현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적정연령을 벗어나고 있다는 불안감, 남은 학기, 얼마 남지 않은 휴학기회, 모르는 사이 어려워진 가정형편 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이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2년 이상 지원해주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은 곧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과 죄책감으로 변해갔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쿨 한척 했지만 2차를 준비하던 선배

나 후배들을 보면서 속으로는 열등감이나 질투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3순환을 마무리 한 후 대구로 내려왔고, 부모님에게 한번만 더 도전해 보고 끝내겠다고 말씀드리고 준비를 다시 하였습니다. 2010년 2학기는 휴학이 1학기 밖에 남지 않아 학교를 다니면서 2차를 준비하였고, 2011년 다시 운이 좋게 1차를 합격하였습니다. 그 후 휴학을 한 후 2차를 서울에서 준비하고 치렀으며 남은 학기를 다니는 도중 2차를 합격하고 마지막으로 3차 합격까지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III. 공부 방법

1. 1차 시험

(1) 과목별 공부 방법

언어논리를 분류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냥 크게 읽어서 해결하는 문제(독해형 문제)와 논리학을 이용하는 문제로 나누어 접근을 하였습니다. 독해형 문제는 처음에는 준비 없이 시험을 쳤어도 무난히 득점을 하였으나 지문이 길어지고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조금 버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따로 공부를 하기 보다는 매해 쌓이는 기출지문들을 바탕으로 2분 내에 읽고 글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논리형문제의 경우에는 한상준 선생님의 논리학특강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참고한 도서로는 '리더를 위한 논리훈련(송하석)'이 있는데 이론 설명 후에 관련 유사기출문제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니다.

자료해석의 경우에는 학교특강을 들은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현 선생님이 내려오셔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많은 자료해석스킬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두꺼운 책 대신 모의고사시즌 전에 신현 핵심정리를 한번 썩 본 후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면서 감을 유지하였습니다.

상황판단의 경우는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었습니다. 처음 법률형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합니다. 크게 유형을 일반형문제, 법률형 문제, 퀴즈형문제로 분류하고 일반형문제와 법률형 문제에서 최대한 정확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퀴즈형문제의 경우에는 시도해보고 풀리는 문제만 풀었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찍었습니다(3번이나 4번으로 하나로 밀면 확률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2) 전체적인 조언

첫째, 처음부터 꼼꼼히 풀기보다는 일단 스킵을 해서라도 80분 안에 40번까지 푸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풀다가 한 문제에 집착하는 경우 뒤에 쉬운 문제를 못 풀거나 대충 풀어서 점수획득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어려운 문제나 쉬운 문제나 점수는 똑같이 2.5점이고 합격선은 75점을 넘기 힘듭니다.

둘째, 처음 준비 할 때부터 기출문제 해설집을 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어야 해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좋을 수 있겠지만 어렵더라도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해설집에는 없는 방법이라도 논리적 결함이 없이 시간 내에 빨리 풀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 모의고사는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몇몇 분들은 모의고사문제의 질을 비판하면서 모강을 풀수록 소위 PSAT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출문제가 제한되어있는 현 상태(초시자 제외)에서 모의고사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의고사는 시간 관리를 연습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고 이상한 문제는 무시하면 될 뿐입니다.

2. 2차 시험

(1) 경제학

1) 전반적인 공부 방법

초시 2차 후 이상근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내용자체는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해 시험결과를 보고 내용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김진욱 선생님강의를 중심으로 순환을 진행했고 각 순환마다 목표를 정해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1순환 : 주요교과서 연습문제 다 풀기 -> 2순환 : 단원별 기출문제 다 풀기 -> 3순환 : 기출난이도와 유사한 모의고사 문제 많이 풀기). 교과서로는 미시는 이준구, 이영환 교수님, 거시는 정운찬 교수님 책을 보았고 서브는 처음에는 미시, 거시zip을 보다가 중간에 거시는 zip 대신

트리니티로 교체하였습니다.

2) 답안작성방법

경제학의 경우에는 강점과목이 아니라서 답안작성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더 꾸밀까 보다는 검산을 해서 답이 맞는지를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은 ① 정의개념 정확히 표출하기 ② 그래프 깔끔하고 크게 그리기 (8·9줄) ③ 최종 답을 따로 목차 잡아서 표시내기 등을 신경 썼습니다.

(2) 행정법

1) 전반적인 공부 방법

행정법의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3순환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그나마 정선균 선생님의 강의가 이해하기가 쉬워서 완주라도 했던 것 같습니다(3순환만 들었는데도 과락을 넘어 뽀뽀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시이후 정선균 선생님 강의를 1순환부터 3순환까지 차례대로 따라 갔고 그 이후에는 정선균 선생님 강의는 3순환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례집으로 진행하는 김기홍 선생님 2순환강의도 한번 수강하였는데 많은 사례를 교과서 순서별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기본서로는 정하중교수님 책을 보았고 서브로는 정선균 선생님의 엑기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례집으로는 김기홍 선생님 사례집과 박정훈 교수님 사례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순환 때 정선균 선생님 외에 다른 대세강사문제(홍, 일, 세)도 모두 구해서 목차 잡는 연습을 계속 하였습니다.

2) 답안작성방법

행정법의 경우에는 나름 자신이 있어서 어떻게 목차를 잡을 것 인가를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사안포섭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중심으로 답안을 생각했습니다. 즉 사안포섭에 유리하게 요건도 만들고 사안포섭에 쓰이지 않는 내용은 아는 내용이라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① 문제점은 성의 있게 (저는 논점의 정리를 쓰지 않아서 문제점에 신경을 더 썼습니다.) ② 학설은 간단히 언급만 ③ 판례는 중요문구를 2·3줄로 요약해서 바르기(?) ④ 검토에서는 비장의 근거제시 ⑤ 사안포섭에 목숨 걸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 행정학

1) 전반적인 공부 방법

행정학의 경우에는 전공이 이 쪽이다 보니 처음 준비할 때는 가장 쉽게 접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할수록 남들과 차별화된 답안을 만들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던 과목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동호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책을 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읽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해에는 박경효 교수님의 3순환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과서로는 유민봉 교수님의 한국행정학을 보았으며, 서브를 따로 만들기 보다는 박경효 교수님의 재미있는 행정학의 각 주제 앞에 포스트 잇 등을 활용하여 저만의 목차를 잡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2) 답안작성방법

공부를 하면할수록 답안작성에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크게 3가지에 집중해서 답안을 연습했습니다. ① 총론문제에는 각론을 각론 문제에도 총론의 이론을 꼭 언급하면서 쓰도록 노력하기 ② 어설피지만 이론을 제시하고 이론 틀을 적용하여 현상을 설명해 보기(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무지하게 써먹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③ 각론을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해당주제의 특징을 뽑아서 이를 기준으로 장점 및 단점을 뽑아내도록 노력했습니다(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특징만 외워도 나머지가 기억났습니다).

(4) 정치학

정치학의 경우는 마지막까지 강사선택의 고민이 많았던 과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강의는 신희섭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의 집중도는 정원준 선생님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지만 안전하게 정치학의 대부분의 주제를 한번 씩은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 신희섭 선생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공부한 단행본으로는 국제정세의 이해(유현석), 정치과정의 동학(고영민), 정치학총론(진영재) 등을 보았고 서브는 스마트정치학(신희섭)을 중심으로 중요논문을 찾아서 읽고 요약정리를 하였습니다. 논문의 출처를 일일이 밝혀드리지 못하지만 강원택(정치과정론), 유석빈(정치경제론), 손철성(정치사상론)교수님의 논문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정치학의 경우에는 답안작성 시 아는 것을 처음부터 쏟아내기 보다는 역진귀납적으로 생각을하고 답안작

성을 연습했습니다. 즉 ①문제의식을 파악한 후 ② 이에 대한 최종결론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③ 최종결론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목차구조나 논거 등을 배열하는 방법으로 연습했습니다.

(5) 정책학

학교수업 들었던 것만 믿고 선택했다가 2번의 2차 시험에서 답안을 다 작성해도 25점 밖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동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정길 교수님 책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읽고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암기분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남은 여력으로 정책사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마지막에 30점을 넘을 수 있는 비결이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교과서로는 정정길 교수님의 정책학원론을 보았으며 따로 서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정정길, 노시평, 권기현 교수님의 책에서 써 먹을 사례들을 따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3. 제3차 시험(면접시험)

2차 합격 직후 30분도 안되어서 행사 사랑 카페에서 면접 스터디를 조직하였습니다(교시기간 중 카페가 가장 도움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참여자 모두 지역직으로 구성했고 스터디를 중심으로 실전연습을 4주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중반 쯤 조인트스터디와 면접과외도 수강을 하였습니다. 조인트스터디의 경우는 긴장감 조성, 다른 지역직분들과의 교류측면에서 유용했지만, 면접과외의 경우에는 비용대비 효율

성이 너무 떨어졌습니다(4회에 60만원π π). 만약 2차에 합격하시더라도 고액의 면접과외를 듣기보다는 합격한 지인에게 2~3차례 모의면접도움을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IV. 기타사항

1. 공부장소

저는 대학소재지가 대구라서 3순환시즌은 신림동에서, 나머지 기간은 학교 고시반에서 공부 및 운동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림동에 가야만 하나고 질문하시는데 결론적으로 3순환시즌 만큼은 사정이 되신다면 신림동에서 공부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무래도 치열한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마지막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휴학시기

저는 운이 좋게 1차를 빨리 합격하여 제 원래계획보다 휴학을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험기간이 길어지면서 남은학과와 제한된 휴학기회는 점점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2차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면 비록 1차를 합격하더라도 휴학결정은 자신의 원래계획에 맞춰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 중앙과 지방의 직렬선택

일행의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자신이 정말 중앙정부부처에서 일하고

싶거나 지자체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소신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험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1차 실력이 유난히 약하지만 면접은 정말(?)자신 있는 분들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정말(?)의 의미를 깊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상상이상입니다).

V. 나가며

마지막으로 행시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지방대출신분들에게 한마디 드린다면 고시는 똑똑한 머리보다는 꾸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시는 스펙이 아닌 실력만으로 합격여부를 가리는 얼마 남지 않은 시험입니다. 정말 원하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투자하실 수 있다면 도전해 보세요.

정말(?)끝으로 속스럽지만 감사한 분들 조금 언급하겠습니다(해보고 싶어요^^). 먼저 저를 믿어주신 아버지, 어머니, 동생 그리고 고시에 관한 조언과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행정학과교수님들과 동창회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합격의 기쁨을 누린 준호형님, 미경누님, 수원이(약속 지켰다), 강혁이, 연경이, 정철이 그리고 같이 공부했던 세근선배, 지혜누나, 광호형, 영구형, 근희(특히 고맙다), 동영, 민희, 윤지, 선화, 은실, 효진, 서영, 혜린, 민혁, 병석, 신욱, 지원, 미연누님, 기찬, 현균 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고 안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